

“배우인 나보다 캐릭터 더 돋보여 큰 공감 얻었죠”

드라마 ‘그 해 우리는’ 출연 최우식
“첫 멜로드라마 도전에 부담 커
배우로서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



재회한 전 여자친구를 애써 태연하게 대하려는데,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이 숨겨지지 않고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에 드러나 버린다.

SBS 월화드라마 ‘그 해 우리는’에서 순수하고 섬세한 느낌의 남자 주인공 최우식은 배우 최우식(32·사진)을 꼭 빼놓았다. 어린아이 같은 해맑은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한데 차분한 말투에는 진중함이 짝짝 묻어난다.

최근 ‘그 해 우리는’ 종영을 앞두고 온라인 인터뷰 만난 최우식은 “작가님이 제가 출연한 예능 ‘여름방학’을 보고 (대본을) 쓰셨다고 했는데, 생활 패턴이나 성격이 저랑 많이 닮긴 했다”며 “싱크로율은 60~70% 정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 해 우리는’은 고등학생 때부터 오랜 연애를 하다 헤어진 최우(최우식 분)와 국연수(김다미)가 재회하면서 설렘인지 그리움인지 모를 감정을 겪는 이야기를 그렸다.

로맨스는 처음이라는 최우식은 “큰 부담감을 품고 시작한 작품”이라며 “멜로라고 했을 때 배우 최우식이 바로 떠오르지는 않아서 (로맨스 작품을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다”고 털어놨다.

뜻밖의 청춘 남녀가 주인공이다 보니 키스 신은 물론 간질간질한 애정행각 장면이 많았다. 최우식은 로맨스 연기가 쑥스럽기는 했지만, 캐릭터에 이입된 뒤에는 연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상대역인 김다미) 정말로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편하기는 했지만, 스킨십이나 감정 표현을 할 때는 부끄럽기도 했다”며 “캐릭터에 이입되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캐릭터에 빨리 빠져들었고, 다미가 차차 연수로 보였다”고 말했다.

캐릭터에 이입한 건 최우식뿐만이 아니다. 시청자들 역시 이와 연수의 출렁이는 연애 전선에 따라 울고 웃었다.

최우식은 드라마가 큰 공감을 얻은 이유에 대해 “사랑이 시작

되고, 이별하는 그런 모습을 다들 많이 봐다 보니 (드라마가 시청자들) 마음에 좀 더 와닿았다고 생각한다”며 “배우보다는 캐릭터가 돋보이는 작품이어서 보는 이들이 좀 더 감정 이입을 쉽게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가 잘되면 출연 배우나 감독이 주목받는데, 드라마가 잘되면 캐릭터가 더 주목받는 것 같다”며 “영화 속 캐릭터 이름보다 드라마 캐릭터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만큼 몰입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으로 최우식의 매력에 빠져든 팬들도 많아졌다. 드라마 방영 전 250만 명 수준이던 소셜서비스(SNS) 팔로워는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는 이런 관심이 고맙고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이 고민하게 된다고 했다.

“연기를 못해서 욕을 먹으면 독을 품고 더 열심히 좋은 연기를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칭찬을 받으면 다음 연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부담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원동력 삼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겠지만, 아직은 부담감을 완벽하게 줄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노하우를 찾는 중이에요.”

2011년 드라마 ‘짝패’로 데뷔한 최우식은 벌써 연기 11년 차 배우다. 영화 ‘부산행’ (2016)으로 천만 관객 배우로 입지를 다졌고,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 (2019)에 출연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차곡차곡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그는 앞으로의 목표로 자기계발을 꼽았다.

“여태까지 해온 연기는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나 성인 초반일 때 겪은 감정을 투영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할 연기는 제가 겪어보지 못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쌓아온 것을 갖고 뒤야 할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전과는 달리 자기계발에 시간을 투자하려고 해요.”

드라마 촬영을 마친 이후에는 ‘벌크업’ (근육 키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배우로서 이미지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다고 했다. 운동을 시작한 뒤 체중 2kg을 늘렸고, 듬직해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고도 털어놨다.

그는 “좋은 작품을 만나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며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배우로서 열정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MBC 떠난 김태호 PD
이효리와 손잡고
예능 ‘서울체크인’ 첫선



김태호 PD

이효리

MBC를 퇴사한 김태호 PD가 ‘제주택’ 이효리의 서울 나들이를 다룬 파일럿 예능 ‘서울체크인’을 선보인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은 김 PD가 연출한 단일 예능 콘텐츠인 ‘서울체크인’을 오는 29일 정오에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김 PD가 지난 17일 MBC를 퇴사한 이후 처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제주살이 9년 차인 이효리가 서울에서 스케줄을 마친 뒤 어디서 자고, 누구를 만나는지 등 서울 라이프를 다룬 리얼리티 콘텐츠다.

‘놀면뭐하니?’의 ‘씩스리·환불원정대’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에 올라온 이효리가 ‘서울에 온 김에 누구를 만나고 갈까’, ‘성수동이 힙하다는데 가볼까’ 등의 생각을 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기획했다. ‘서울체크인’은 서울이 낯설어진 이효리의 속마음과 고민,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보는 이에게 위로와 공감을 건넨다. /연합뉴스

손담비, 봄날 신부 된다
이규혁과 5월 결혼



손담비

이규혁

배우 손담비가 연인인 이규혁 스피드스케이팅 감독과 5월 결혼한다. 에이지엔터테인먼트는 “손담비 씨가 이규혁 씨와 평생을 함께할 백년가약을 맺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결혼식은 5월 13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치러진다.

지난달 손담비와 이규혁은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3개월 여간 열애 중임을 밝혔다.

2007년 가수로 데뷔한 손담비는 2009년 방송된 드라마 ‘드림’을 시작으로 ‘빛과 그림자’, ‘유미의 방’, ‘동백꽃 필 무렵’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행보를 걸고 있다.

이규혁은 1991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로 선발돼 올림픽에 여섯 차례 출전했으며 1990년대 불모지였던 한국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을 사실상 이끌었다고 평가받는다. 현재는 IHQ 스피드스케이팅 감독을 맡아 2022 베이징올림픽 국가대표 이승훈을 지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관 특수... ‘뉘’ ‘덩케르크’ ‘해리포터’ 다음달 재개봉

3월에는 블록버스터 ‘더 배트맨’ 개봉



‘덩케르크’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특수관이 특수를 맞았다.

큰 화면에 선명한 화질, 독자적인 화면비를 보여주는 아이맥스(IMAX)와 소리를 3차원 공간에 배치해 사운드에 특화된 돌비 시네마, 모션 효과로 오감을 자극하는 4DX까지.

다음 달 9일 드니 빌뇌브 감독의 SF 영화 ‘뉘’ (2021),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 (2017),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2007)이 동시에 재개봉하며 특수관 대격돌이 벌어진다.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뉘’은 우주에서 가장 귀한 자원 생산자인 아라키스 모래 행성 ‘뉘’을 두고 벌이는 거대한 전쟁과 전설의 메시아 폴의 여정을 그린다.

요르단과 아부다비 사막의 장엄한 경관을 담아낸 압도적인 영상미가 강조된 작품으로 지난해 개봉 당시 아이맥스 상영관은 연일 매진을 기록하는 등 인기가 높았다.

아이맥스 붐을 일으킨 ‘덩케르크’도 아이맥스로 다시 만날 수 있다.

영화는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된 40만여명의 영국군과 연합군을 구하기 위한 사상 최대의 탈출 작전을 그린다.

리얼리즘을 극대화하기 위해 1300여명의 배우가 출연했고

실제 덩케르크 작전에 참여한 민간 선박 13척과 스핏파이어 전투기를 동원해 전체 상영 시간 106분 중 79분을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했다.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의 한가운데로 끌려들어간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압도적인 현장감으로 호평받았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5편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은 해리포터가 마법사들의 비밀 단체 불사조 기사단과 함께 어둠의 제왕 볼드모트에게 맞서 격전을 벌이는 이야기다.

원작 시리즈 중 가장 탄탄한 구성과 흥미로운 이야기 구조로 호평받으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된 이번 시리즈는 영화에서도 화려하고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한다.

3월에는 올해 첫 히어로 블록버스터 ‘더 배트맨’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데넷’의 로버트 패틴슨이 주연하고 ‘혹성탈출’의 매트 리브스 감독이 연출한 ‘더 배트맨’은 일반 상영(2D)은 물론 아이맥스, 돌비 시네마, 스크린X, 4DX, 슈퍼4D 등으로 관객을 만난다. /연합뉴스

피쉬데이(주)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연매출 100억원, 사원수 20여명 규모의 평균나이 33.6세, 20~30대의 젊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농수산물 유통전문 업체입니다.

광주/전라남북도 전역에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피쉬데이 직영점을 포함 백화점, 하이퍼마켓 입점운영과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마켓 등 온오프라인을 겸비한 다양한 유통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탄탄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인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 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산순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참치 납품/배송) 1톤 냉동참치 배송 수산물을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 문의 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

FISHDAY 피쉬데이
상당한 약속 피쉬데이

피쉬데이 2호점
OPEN
FISH DAY